

10월 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시카고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다우 장중 150p 하락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월말이자 분기말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했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조업 지표가 예상밖으로 악화됐기 때문임. 다만, 분기말 `원도 드레싱` 효과에 힘입어 장후반 낙폭을 크게 줄였음. 특히 이날 하락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9월장을 상승세로 마감하며 7개월 연속 랠리를 이어갔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9.92포인트(0.31%) 떨어진 9712.2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2포인트(0.08%) 하락한 2122.4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53포인트(0.33%) 떨어진 1057.08을 기록했다.
美 2분기 GDP는 -0.7%, 기대 이상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1.2%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임. 이같은 위축세는 -6.4%를 기록했던 올 1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지난달에 -1.0%으로 발표된 수정치보다도 상향 조정된 수치임.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2분기 GDP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임. 이와 관련, 린지 피그자 FTN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는 "몇달전 상황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라며 "(줄어든) 재고와 정부 프로그램이 하반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美 달러화 가치, 유로화에 2분기째 하락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음. 해외 경제지표들이 강화된 점이 달러화 수요를 약화시켰음. 미 연준 고위 관계자가 저금리 기조를 재차 확인한 점도 영향을 미쳤음. 30일(현지시간) 미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1포인트(0.14%) 떨어진 76.80을 나타내고 있음. 유로-달러 환율은 0.3141% 상승(달러가치 하락)한 1.4633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이로써 미 달러화는 2분기 연속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가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가 유로지역의 경기회고 시그널로 해석돼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ADP 민간고용보고서 `기대치 미흡`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이 발표한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민간부문에서 25만4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이는 전월 감원규모인 27만7000명(수정치)보다는 적지만 시장의 전망치는 크게 웃돌았음.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20만명 정도가 예상됐었음.부분별로는 재화 생산직 일자리가 15만1000개 감소했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10만3000개 줄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5%대 급등.. 다시 70달러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을 회복함.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30일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90달러(5.8%) 급등한 70.61달러로 거래를 마침. 당초 증가세가 점쳐졌던 휘발유 재고가 뜻밖의 감소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함.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25일 마감기준) 원유 재고가 280만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도 3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음. 반면 휘발유 재고는 16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에너지 정보기업인 플래츠는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120만배럴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었음.
佛선사 `모라토리엄`.. 조선업체 "발주취소는 과장"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의 CMA CGM社가 채권단들에게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CMA CGM社가 발주한 선박들을 수주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수주취소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대부분 배들의 발주자금이 선사 외에 재무적 투자자 자금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어 용선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발주취소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 현재 국내 대형 조선업체 중 CMA CGM社로부터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한 곳은 현대중공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1만1356TEU급 9척을 인도할 예정. 따라서 시장 등에서는 가뜰이나 조선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번 CMA CGM社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동국제강, 해외채권 1 억불 첫 발행	동국제강이 처음으로 해외 채권을 발행했음. 1억달러 규모의 만기 2년짜리 사모채권임. 동국제강은 변동금리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총 1억달러 어치 발행했다고 30일 밝혔음. 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두 개가 발행됐으며 각각 우리금융지주 소속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소속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았음. 만기는 2년짜리로 2011년까지임. 동국제강이 해외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에 조달한 달러는 원자재 결제대금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8월 생산 2개월 연속 증가..전월비 올들어 `첫 감소`	월 산업생산이 1.2%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두달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나란히 8개월,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17.2로 전년동월에 비해 1.2% 늘어나며 지난달(0.7%)에 이어 두달째 증가함. 다만 8월 휴가철 영향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1.3% 감소하면서 올 들어 첫 마이너스를 기록함. 이는 지난해 12월(-9.6%)이후 8개월만에 처음임. 소비재판매, 서비스업생산 등은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2.0%, 1.1% 증가하며 지난 4월이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에 머무는 부진을 보였음. 8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16.8% 감소했지만 지난달(-18.2%)에 비해 감소폭은 다소 둔화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